

‘웰컴’ KIA 윤석민, 605일만에 1군행

내달 2일 두산전 선발등판...2016년 4월17일 이후 776일만에
재활 후 퓨처스리그 3경기서 12%이닝 1승 무패 평균자책 1.42



KIA 타이거즈의 우완 투수 윤석민(32)이 605일 만에 1군 마운드에 오른다. 김기태 KIA 감독은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윤석민이다”

음달 2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선발로 등판한다고 밝혔다.

큰 문제없이 예정대로 등판하면 윤석민은 2016년 10월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 이후 605일 만에 1군 마운드에 서게 된다.

선발 등판은 2016년 4월17일 광주 넥센 히어로즈전 이후 776일 만이다.

KBO리그 정상급 투수로 활약한 윤석민은 어깨 통증으로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2016년 말 오른 어깨에 옷자란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받은 윤석민은 지난해 한 차례도 등판하지 못했다.

재활을 마친 윤석민은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 3경기에서 12%이닝을 던지며 패배 없이 1승, 평균자책점 1.42를 기록해 합격점을 받았다.

윤석민은 프로 통산 370경기에 등판해 1230이닝을 던지면서 77승 67패 75세이브 18홀드 평균자책점 3.18의 성적을 거뒀다.

2011년에는 17승 5패 평균자책점 2.45의 빼어난 성적으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가 됐다.

뉴시스



2018 전주시 한옥마을배 전국축구대회 전남OB 50대팀 ‘우승’ 쾌거

2018 전주시 한옥마을배 전국축구대회에서 전남OB 50대팀(지회장 김승호)이 우승을 차지했다.

전주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축구협회, 전주시축구협회가 주관, 대한축구협회, 전라북도, 전주시 체육회, 한바탕전주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주시 완산체육공원 일원에서 50대 18개팀, 60대 5개팀 총 23개팀 등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해 열전을 벌였다.

임장식에서 전주시축구협회 이영국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랜 역사와 향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애환의도시 전주에서 2018 전주시 한옥마을배 전국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본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한다”면서 “본 대회를 통해서 전주시민들의 올바른 선비정신과 전통에 대한 자존감이 살아 숨쉬는 문화현장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맛의 고장인 전주에서 스포츠 문화의 조화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선수들간의 우정과 신의를 돈독하게 쌓을 수 있는 축제의 무대를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에 나선 전남OB 50대팀은 예선에서 1차전에서 전년도 우승팀

인천남구를 맞아 4대1로 승리하고 2차전에서 경남 김해를 맞아 예0으로 비겨 조1위로 8강에 안착했다.

8강에 나선 전남OB 50대팀은 강호 천안을 맞아 3대2로 승리했다.

전남OB 50대팀은 4강에서 경기도 오산팀을 맞아 분전했으나 심판의 석연치 않는 판정으로 한명의 선수가 퇴장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잔반 1대0으로 지고있는 가운데 후반에 1점을 추가 1대1로 비겨 승부차기에서 송홍길 골키퍼의 2개 선방으로 승리해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 나선 전남OB 50대팀은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전년도 우승팀 인천남구를 맞아 3대2로 승리해 우승을 확정 지었다.

전남OB 50대팀 오세훈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소통과 한마음으로 땀 흘려 싸우고 선수들이 잘 따른 결과로 우승해 기쁘다”면서 “특히 12번째 선수들이 열심히 응원 해주고 이대회가 있기까지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틀간의 열정으로 전남OB 50대팀 최우수선수상 송홍길 선수, 우수감독상 전남OB 50대팀 오세훈 감독, 우승으로 한옥마을배(트로피)와 부상으로 200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순천=김승호 기자

다시 태극마크 단 김영권 “정신 차리고 준비했다”

정승현과 안정적 호흡...김민우는 군인정신 강조



짧은 공백을 깨고 다시 태극마크를 단 센터백 김영권(광주에 버그란데)이 “정신 차리고 한다면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다”고 복귀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29일 오후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 앞서 태극마크를 되찾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신태용호 1기의 주장을 맡을 정도로 기대를 모은 김영권은 부진한 모습으로 눈도장을 받는데 실패하며 임지가 좁아졌다. 3월 유럽 평가전에서도 제외됐지만 김민재, 홍정호(전북) 등의 부상으로 재출전의 기회를 잡았다.

다시 돌아온 김영권은 28일 온두라스전에서 무실점 경기를 펼쳤다. 정승현(사간 도스)과의 안정적인 호흡으로 신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김영권은 “오랜만의 A매치에 많은 준비를 했다. 무실점해서 잘했다기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승현이랑은 처음 맞췄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 잘 맞았다”고 돌아왔다.

대표팀에 승선한 인원 중 센터백은 6명이다. 이들 모두가 러시아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 주 전술의 행태에 따라 1명 정도는 최종 엔트리에서 빠질 수도 있다.

끝없는 경쟁에 지칠 법도 했지만 김영권은 오히려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며 수용했다. “선외의

경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는 것 같다. 훈련장이나 경기장에서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다.”

한국은 6월1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보스니아와 마지막 국내 평가전을 벌인다. 출장식을 겸하는만큼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김영권은 “보스니아전은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하진 않았지만 (온두라스보다) 더 강한 상대이니 더 강하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 측면 수비수 김민우(상주)는 후반 10분 교체 투입돼 35분 가량을 그라운드를 누렸다. 김민우는 “어제 승리를 통해 조금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 다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철(상주), 김진수(전북), 박주호(울산)와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경쟁이 있어야 선수와 팀이 발전할 수 있다”고 반겼다.

육군 일병이기도 한 김민우는 “군인 정신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도움선두’ 성남 문상윤, K리그2 13라운드 MVP

성남의 문상윤이 KEB하나은행 K리그2(챌린지) 2018 13라운드 MVP로 뽑혔다.

문상윤은 28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과 대전의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13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장했다. 이날 경기에서 1골과 2도움을 기록하며 13라운드 MVP가 됐다.

문상윤의 활약에 힘입어 홈에서 4-2 대승을 거둔 선두 성남은 지난 경기 시즌 첫 패배의 아픔을 씻어냈다.

이날 경기에서 두 개의 도움을 추가한 문상윤은 K리그2 도움 선두에 오르는 기쁨도 누렸다.

K리그2 13라운드 베스트11 공격수 부문에는 이현승(부천), 나상호(광주)가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 11 미드필드에는 문상윤(성남), 마르코스(안양), 무랄라(성남), 한의권(아산)이 선정됐다. 베스트 11 수비수에는 이경(안산), 이한도(광주), 최호정(안양), 김준연(부천)이 뽑혔다.

베스트 골키퍼로는 전수현(안양)이 선정됐다. 베스트팀 성남, 베스트 매치는 성남-대전으로 결정됐다.

홈페이지: www.i-honam.com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문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호날두 ‘오버헤드킥’ 챔스리그 최고의 골

UEFA, 베스트 골 10 선정...팀 동료 베일 오버헤드킥 2위

유럽축구연맹(UEFA)은 올시즌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나온 최고의 골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오버헤드킥을 선정했다.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30일(한국시간) “UEFA 기술 자문단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골 10’을 뽑았으며 그 중에서 호날두의 골이 최고의 명장면으로 선정됐다”며 개러스 베일의 오버헤드킥은 2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호날두는 지난달 4일 유벤투스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그림 같은 오버헤드킥을 선보였다. UEFA 기술 자문단은 “기술과 운동 능력이 결합된 대단한 플레이였다”고 평했다. 베일의 오버헤드킥에 대해 UEFA 자문단은 “화려한 곡예기술을 선보이며 팀에 2-1 리드를 안겼다”고 높이 평가했다.

베일은 27일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후반전에서 마루셀루가 띄운 측면 크로스를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왼발 오버헤드킥으로 골을 넣었다. 호날두와

베일은 ‘베스트 골 10’에 2골씩을 올렸다.

◇UEFA 선정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골 10’

1.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 챔피언스리그 8강전
2. 개러스 베일(레알 마드리드) = 결승전
3. 콘살로 이파인(유벤투스) = 16강전
4. 앙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 조별리그
5. 에디 제코(AS 로마) = 조별리그
6. 개러스 베일(레알 마드리드) = 조별리그
7. 프레드(사호르) = 16강전
8. 케빈 더 브라우너(맨체스터 시티) = 조별리그
9. 로렌조 인시네(나폴리) = 조별리그
10.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 조별리그

뉴시스

아기엄마 세리나, 메이저 복귀전 승리 영화 블랙팬서 속 ‘와칸다 스타일’ 테니스복 눈길

엄마가 돼 돌아온 세리나 윌리엄스(37·미국·세계랭킹 45위)가 메이저대회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1회전에서 세계랭킹 70위 크리스티나 플리스코바를 2-0(7-6(7-4) 6-4)으로 꺾었다.

윌리엄스의 메이저대회 승리는 2017년 1월 호주오픈 결승전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지난해 1월 호주오픈 이후 부상을 이유로 대회에 나서지 않던 윌리엄스는 같은해 4월 임신 5개월이라는 사실을 공개했고, 지난해 9월 출산했다. 당초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출전할 예정이던 윌리엄스는 준비 부족으로 대회를 건너 뛰었고, 프랑스오픈을 통해 메이저대회 복귀전을 치렀다.

윌리엄스는 최고 시속 187km의 강서브를 앞세워 13개의 서비스 에이스를 터뜨렸다. 더블볼트 7개를 범했으나 첫 서브의 80%를 득점으로

연결하며 승리를 누렸다. 윌리엄스는 2회전에서 세계랭킹 17위 애슐리 바티(22·호주)와 맞붙는다.

윌리엄스는 경기 후 “많은 에이스가 나와 쉬운 경기는 아니었다. 오늘은 정말 서브를 잘 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다”며 “코트는 나의 인생이나 다름없다. 코트에 있는 것을 정말 즐기고 있고 이 느낌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딸 엘리시스 올림피아를 보고 싶다. 내가 훈련을 하지 않을 때에는 늘 같이 있다”며 “내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림피아다. 내가 인생에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딸이라는 것을 올림피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딸에게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몸에 딱 붙는 검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 윌리엄스는 “마치 와칸다(영화 ‘블랙 팬서’에 등장하는 가상 왕국)를 떠올리게 하는 유니폼이다. 영화를 보기 전에



디자인을 했지만 와칸다가 떠오른다”며 “여전사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윌리엄스는 “나는 늘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슈퍼히어로가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유니폼은 무척 재미있으면서 기능성을 갖춘 옷”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혈전 때문에 건강을 위협당한 윌리엄스는 “혈전 문제 없이 경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만족을 표했다.”